

# 홀로 선 날들의 기쁨과 슬픔

## '꽃담' 해만 스님 지음



사람들은 이맘때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다가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고 가족과 직장을 뒤로 하고 나만의 공간을 가져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얻는다. 지은이의 사적인 독백이 읽는이의 내면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가을, 별 좋은 트랙에서 책 속으로 푹 빠져들게 하는 산문집 두 권이 동시에 나왔다. 남해안의 작은 섬 비진도에서 한 비구니 스님이 쓴 <꽃담>(시공)과 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며 망명생활을 했던 고 윤이상 씨의 아내 이수자 씨의 <나의 독백>(한겨레신문사)이 바로 그것이다. 두 책 다 '홀로 한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우리네 삶의 여제와 오늘이 곱게 새겨져 있다.

<꽃담>은 30여 년을 도심에서만 살아온 비구니 해만 스님이 외딴 섬에서 1년 정도 홀로 정진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담

았다. 스님의 토굴생활은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2월부터 시작된다. 정진을 위해 처음으로 만든 것은 수행계획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공부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도 지켜봐 주지 않기에 필요한 시간표였다. 새벽 2시 30분 일어나 예불과 참선 그리고 108배, 책읽기 등의 꼭 짜여진 토굴 생활을 하면서 스님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임을 터득한다.

## '꽃담' 외딴섬 비구니 수행기

## '나의 독백' 이역 하늘서 부른 망향가

문명의 세계에서 벗어나 외진 섬에서의 수행과 일상을 독백 형식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섬으로의 초대'에서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섬 생활을 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비진도 생활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손님'에서는 비진도로 찾아온 사람들과 나는 이야기, '자연'에서는 '자연' 담은 '섬'에서는 뱀, 염소, 벌레 등 자연에 대한 단상과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생각을 적었다. 그리고 '푸른 섬 연등 하나'에서는 집착 없는 삶을 위한 인간적인 고민과 노력의 흔

## '나의 독백' 이수자 지음



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값 7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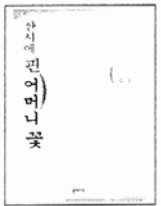
<나의 독백>(한겨레신문사)은 이수자 씨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북한과 독일, 미국 등지를 오가며 느낀 외로움과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절에 대한 회상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한 감상 등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지은이는 3년 전 윤이상 전기 <내 남편 윤이상>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자신과 남편의 고향이 있는 남한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남북한과 독일 등 어디에도 안착할 수 없지만 어디에도 원망할 수 없는 서글픔을 풀어놓고 있다.

1부에 실린 20편은 주로 지은이가 만난 북한사람의 일상과 정서에 대해서, 그리고 2부의 13편은 백두산과 보현사 등 북한의 주요 사찰과 명산을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값 8천5백원.

김종근 기자 gamma@buddhania.com

## 어둠속에서 찾은 밝은 삶

### '산사에 핀 어머니 꽃' 원종 스님 지음



한순간의 실수로 가족을 등져야 했던 어머니. 그 후 한순간도 참회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본 <산사에 핀 어머니 꽃>(문예마당)이 나왔다. 지은이는 원종 스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본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빈민하는 모습을 통해 '참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이 책은 부처님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3편이 실려 있다. 이야기들의 핵심은 복잡한 내면의 갈등을 겪던 여성이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지와 내면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회상과 봉사로 송고하게 승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행과 고뇌 그리고 불교와의 만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와 회상과 봉사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값 7천6백원. 김중근 기자

## 美 전략가가 쓴 '빈 라덴' 전기

###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 세계에서 반미성전의 영웅이라 불리는 오사마 빈 라덴. 그의 전기 <오사마 빈 라덴>(명상)이 국내 처음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인 군사, 테러 분석가로 미의회의 대 테러리즘 특별팀 책임자인 요제프 보단 스키가 썼다. 지은이는 1980년대부터 이슬람 원리주의자로부터 빈 라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때부터 '라덴 파일'을 만들어왔다. 많은 관리들과 이슬람 전사들, 테러리스트, 군사령관, 망명자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현지 언론 등을 자료원으로 위함을 무릅쓰고 취재한 것이다.

빈 라덴은 누구인가에서부터 미국에 대한 선전 포고, 빈 라덴의 음모 등을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

## 평화위한 종교간 책임기

인도의 영성가이며 가톨릭 예수회원 안소니 드 멜로 신부가 쓴 <깨어나십시오>(분도)는 종파를 초월하는 지혜서라 할 수 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까지는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글을 보면 불제자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들어본 가르침이라 하겠다. 불가에서는 '살과 죽음이 하나(生死一如)'라고 가르친다.

## 사랑하고 자비 베풀라



### 변희선 신부 '깨어 나십시오'

드 멜로 신부에 의하면,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감각적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에 의하여 매개된 세계, 즉 깨달음을 통하여 진아(眞我)를 얻은 세계를 말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인인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돈이나 권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이라고 착각하는 게 일반 상식인 요즘 세상에서 참 자유를 깨우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악업(惡業)들에 의하여 속박된 인간 개인들과 집단이기주의로 중무장한 여러 조직들은 오늘도 자신들만의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미국, 아프간, 빈 라덴도 결국 악업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비자유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드 멜로 신부는 절규한다. 종교 집단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인도, 불자도, 회교도들도 모두 종파주의를 초월하여 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참 진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이다.

##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해 영성·깨달음 되살려야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야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인식이라기보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로 몰입하는 경지를 말한다. 서양의 기독교가 수행(修行)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지만, 동양의 현자들은 학문이나 지식이 머리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랜 역사를 통하여 터득해왔다. 수행이 부족한 지식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보화 국제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집착하고 인간 본연의 가치인 영성(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드 멜로 신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공통점, 즉 영성과 깨달음을 초 종파적으로 되살려야 한다.

"사랑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자비를 베풀라. 기독교의 성서나 불경에 나오는 공통 가르침이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변희선 신부는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수회신학대학원을 거쳐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및 교육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 수련 교육학>, <마음의 경제학, 하늘의 경제학> 등이 있다.

## 자연속에 숨어있는 영적 힘

### '형태의 탄생' 승태욱 옮김

'오감(五感)으로 파악한 사물의 모양'을 흔히 형태(形態)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 형태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신간 <형태의 탄생>(안그라픽스)은 바로 그 형태 발생의 원리를 밝힌 책이다. 지은이는 만다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이미지 도상 연구, 지각론 등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스기우라 고헤이(일본 고베 예술공과대) 교수.

그는 "고대부터 일본인은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작용에 대해 '치(ち·생명)'라는 이름을 붙여 존중해 왔다"며 형태연구를 시도한다.

지은이가 형태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시아 각 지역에서 제작된 그림들로 크게 네 가지 부류다. 안구 등 생물을 이루며 하나로 융합하는 신체의 구조 형태를 통해 우주의



근본 원리를 파악하는 것과 문자 탄생의 과정 그리고 책이나 지도라는 미디어의 시·공간 속에서 형태가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 책에는 불교관련 그림들도 등장하는 데, 만다라(인상)의 형태만 제대로 살펴도 여러 부처의 지혜나 능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부처의 자비심까지도 알 수 있다고. 또 티베트의 한 불교사원의 벽면에 그려진 심상도(心象圖)에서는 수행의 과정, 즉 마음의 계단을 오르는 길을 읽어 낸다.

이 책은 자칫하면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형태'와 '생명'의 관련성에 대한 지적 고찰로 가득하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 현대인 위한 풍수상식

### '나도 풍수가...' 홍순영 지음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풍수에 관한 지식과 활용방법을 소개한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화산문화)가 출간됐다. 지은이는 문화재청에서 30여 년간 생활역학 및 풍수지리 조사연구를 해온 홍순영(66·대한풍수지리학회 이사장) 씨. 그는 풍수지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생활과학이자 지혜라고 말한다. 그런 만큼 지금도 조상의 뒷자리를 집터를 잡을 때, 방위의 결정, 사무실과 가구의 배치, 문과 창호의 설치, 잡자리 등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풍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 음택(陰宅), 양택(陽宅), 산수용혈(山水用穴), 장법(葬法), 택일(擇日)과 이사(移徙), 나경(羅經)의 사용법, 수리길흉론(數理吉凶論) 등을 적은 풍수지리 안내서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금강경 역해	각 목	불광
2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3	불교수행요론	박현	바나리
4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림미디어
5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6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손혜숙	이름드미디어
7	풍경소리	풍경소리	샘터
8	초기불교개척사	김재영	도리안사
9	그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라	이거룡	아테네
10	거울	원성	이레

도서 안내: (02)737-0695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www.yosiamun.com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 마음 맑히는 책들 3 승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승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승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흥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흥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승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승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훑을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몸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견성한다'는 정신으로 사리와 빛이 될 책들을 만듭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 부처님께 재를 털면

